

200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	-------	--	--	--	--	---	--	--	--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불행이 닥치면 서로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한다.
- 불행의 원인을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 행복보다는 불행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 불행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2. (물음) <보기>를 참고할 때, 여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 옳은 것은?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3. (물음) 방송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체형 난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 고체형 난로의 염화나트륨은 쇳가루의 산화 작용을 억제한다.
- 고체형 난로와 액체형 난로 둘 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액체형 난로 안의 작은 쇳조각은 외부의 충격을 막아 준다.
- 액체형 난로는 아세트산나트륨이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낸다.

[4~5]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선생님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하며 학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 학생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학생의 의견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대비되는 사례를 들어 학생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 질문을 던져 가며 학생이 알고 있던 내용을 되짚게 하고 있다.

5. (물음)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발언 내용이 회의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학급회의 상황	
동의	새로운 제안 하나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학급 전체가 등산을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①
제청	등산을 가자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②
개 의	몸이 아파 등산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 ③
재개의	오늘은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을 도울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시다. ... ④
정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 ⑤
폐회	이상으로 3월 학급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채점 요소'에 착안하여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발표 내용을 참신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
 ② ㉡ : 적절한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③ ㉢ : 발표 내용을 급우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둔다.
 ④ ㉣ : 근거가 분명한 주장과 견해를 올바른 말하기 방식으로 발표한다.
 ⑤ ㉤ :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정보량을 조절한다.

7. <보기>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문 :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

I. 서론 : 친환경 에너지의 개념 및 개발 현황..... ㉡

II. 본론

1.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 (1)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
 - (2)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적 경쟁 추세
 - (3) 태양열에 치우친 친환경 에너지 수급..... ㉢
2.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장애 요소
 - (1)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2)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 미비
 - (3)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부족
 - (4) 친환경 에너지 개발 비용의 조달 방안 모색..... ㉣

3.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

- (1)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 홍보
- (2)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 (3) ㉤

III. 결론 :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회적 관심 촉구

- ① ㉠ :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로 수정한다.
 ② ㉡ :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현황을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③ ㉢ : 상위 항목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④ ㉣ : 'I'로 옮겨 서론의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⑤ ㉤ : 'II-2-(3)'을 고려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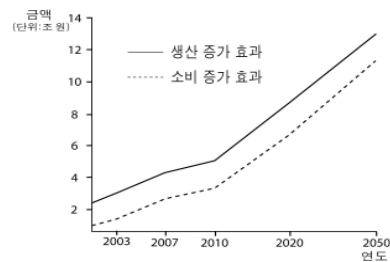
8. <보기>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국가선진화지수 비교(100점 만점)

	종합지수	정치	사회	경제	다문화
OECD 평균	60.8	87.6	67.5	55.4	32.6
한국	47.3	71.1	52.1	48.5	17.4

(나) 외국인 근로자가 유발하는 생산 증가와 소비 증가 효과



(다) 기사 자료 : 결혼, 이민, 취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는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 역시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다.

(라) 인터뷰 자료 : “장기 연수를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주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보내 저의 현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연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장기 연수를 했던 친구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활용 자료	글의 내용
①	(가)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문화 분야에서 선진화가 덜 되었다.
②	(나)	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
③	(다)	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인식과 대응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④	(가)+(나)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⑤	(다)+(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배려가 미흡한 편이다.

9.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그 내용과 관련 있는 대상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분별력 없는 네티즌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에 ㉠ 주목하여 또 다른 악성 댓글을 마구 만들어 낸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무책임한 여론은 대개 ㉡ 순식간에 확산되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 악성 댓글 문제점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 양산되는 악성 댓글들이 맹목적인 여론으로 ㉣ 증폭되어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털 사이트들은 모니터 요원을 두어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 결국 게시판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되고, 네티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편승하여'로 바꾼다.
 ② ㉡은 조사가 잘못 쓰였으므로 '순식간에'로 고친다.
 ③ ㉢은 지나친 명사화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악성 댓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친다.
 ④ ㉣은 어법에 맞지 않는 이중피동 표현이므로 '증폭되는'으로 고친다.
 ⑤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더해지는 것이다.'로 고친다.

10. <보기>의 광고를 조건에 맞게 완성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구 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조건]

- 상황에 맞는 내용을 담아낼 것
- 비유의 표현법을 활용할 것
- 대조적 이미지를 드러낼 것

- ① 작은 정성 큰 기쁨. 구호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 봅시다.
 ② 당신이 건넨 관심과 사랑. 메마른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단비입니다.
 ③ 사랑의 범위를 넓혀 보세요. 당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④ 구호 활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실천에 동참합시다.
 ⑤ 당신의 구호 성금은 누군가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11.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 용언(用言)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하는 것을 'ㅅ'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 낫다 : 낫고, 나아, 나오니, 나았다
- 젖다 : 젖고, 저어, 저으니, 저었다

- ① 씻다 ② 있다 ③ 굶다 ④ 붓다 ⑤ 짓다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인 의미를 ㉠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 즉, '여성'이라는 낱말의 경우, '사람, 남성과 상대되는 말'과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사전적 의미이다. 그리고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 ① 너로 인해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② 그들의 영혼에 사랑의 불이 붙었다.
 ③ 그는 세속에 물들어 순수성을 잃었다.
 ④ 우리 학교에 자율화 바람이 불고 있다.
 ⑤ 갓 피어난 연꽃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꽃은 피는 대로 보고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한아름 짝 안아 보지 못해서
전신을 다 담아도
한 편(篇)에 2천원 아니면 3천원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천직(天職)

늪에서까지 아껴서
어릿곳은* 눈물의 사랑을 노래하는
젊음에서 늪음까지 장거리의 고독!
킬킬하면 술 한 잔 더 마시고
터덜터덜 가는 사람

신이 안 나면 보는 척도 안 하다가
쌀알만한 빛이라도 영원처럼 품고
나무와 같이 서면 나무가 되고
돌과 같이 앉으면 돌이 되고
흐르는 냇물에 흘러서
자국은 있는데
타는 놀에 가고 없다.

- 김광섭, 「시인」 -

* 어릿곳은 : 어리석고 곳은

(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시가 뭐냐] 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다)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 만하건만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울조리고
저녁엔 솔개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年已涉縱心
位亦登台司
始可放雕篆
胡爲不能辭
朝吟類蜻蛉
暮嘯如鳶鷂
無奈有魔者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 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 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 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 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夙夜潛相隨
一著不暫捨
使我至於斯
日日剝心肝
汁出幾篇詩
滋膏與脂液
不復留膚肌
骨立苦吟哦
此狀良可嗤
亦無驚人語
足爲千載胎
撫掌自大笑
笑罷復吟之
生死必由是
此病醫難醫

- 이규보, 「시벽(詩癖)」 -

* 시마(詩魔) : 시를 짓고자 하는 마음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화체를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 모두 과거 회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14 다음을 (가)의 창작노트라고 가정할 때, ㉠~㉣의 시어 선택에 대하여 주리해 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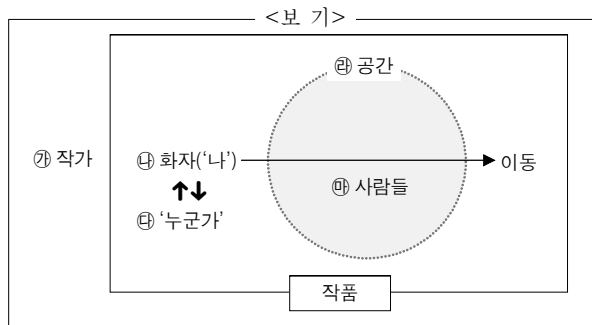
꽃은 피는 대로 보고 ㉠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사랑, 신앙】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
한아름 짝 안아 보지 못해서 【가만히, 꼬옥, 짝】
전신을 다 담아도 ㉢
한 편(篇)에 2천원 아니면 3천원 ㉣ 【2·3천 원, 몇 천 원】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천직(天職) 【천성, 천직, 천치】
:
:
:

- ① ㉠ : 인류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다는 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을 거야.
- ② ㉡ : 세상에 있는 혼한 물건에도 선험 욕심을 내보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야.
- ③ ㉢ : 시를 쓸 때, 단지 머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야.
- ④ ㉣ : 사회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인의 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적합했을 거야.
- ⑤ ㉣ : ‘천성’이나 ‘천치’를 썼다면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웠을 거야.

15. (가)와 (다)의 화자가 ㉠의 물음에 답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소중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 ② (가) :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과 자연을 담은 것입니다.
- ③ (다) : 육신은 힘들지만 열정을 다해 한 수 한 수 짓게 되는 것입니다.
- ④ (다) : 좋은 시를 쓰기 위한 피 말리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만족할 만한 작품을 남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 ⑤ (다) :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6. (나)의 시적 상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해 보았다.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를 동일하게 본다면 시 내용이 작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와의 대화는 ㉠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를 돌아다니는 동안 ㉢의 물음에 대한 반응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의 모습에서 고귀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17.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시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8.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모순에 대한 자각
- ②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집착
- ③ 대상에서 깨닫는 인생의 지혜
- ④ 대상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
- ⑤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익살 섞어 과장되게 표현한 ㉠ 말이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새로운 여성 패션 잡지를 창간하면서 구매자 모두에게 고급 립스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광고를 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창간호 30만 부가 모두 팔려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 방식이 공짜 마케팅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학적 배경 중의 하나는 균형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무엇을 받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 때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기업이 판매 전략에 활용한 것이 공짜 마케팅이다. 기업으로부터 공짜 관측의 혜택을 누린 소비자는 기회가 되면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려 할 것이고, 이런 심리적인 작용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 공짜 마케팅의 경제학적 원리는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계 비용이란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다. 가령, 현재 10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이동 통신사가 새롭게 1000만 1 번째 고객을 유치했다고 하자. 이 이동 통신사의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설비가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확충에 나서기 전까지는 추가 서비스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0에 가깝다. 반면에 고객이 3년의 사용 기간을 약정하고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객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은 3년 간 180만 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수십 만 원짜리 휴대 전화를 공짜로 제공하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짜 마케팅은 투입한 비용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지 못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판매할 제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공짜 혜택을 주거나,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제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또는 자사의 상표를 대중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매출 신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과소비를 유발하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 [A]와 [B]의 내용을 대비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공짜 마케팅의 긍정적 기능을, [B]는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A]는 공짜 마케팅을 통시적 관점에서, [B]는 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A]는 공짜 마케팅의 사례를 중심으로, [B]는 여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A]는 공짜 마케팅을 소비자의 심리 측면에서, [B]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A]는 공짜 마케팅이 가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B]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20.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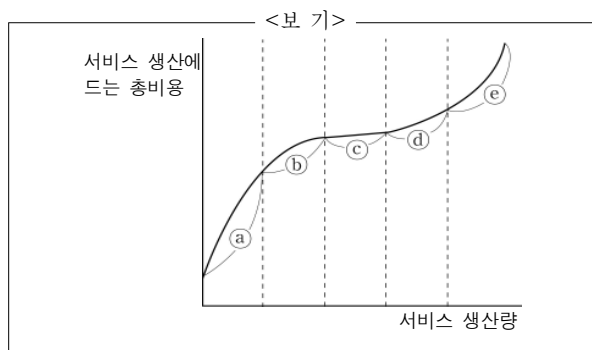
A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며 시행한 '무료 시승 체험단' 모집에 수십 만 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이 회사는 무료 시승에 따른 각종 비용으로 6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분석하여 행사를 통해 예상되는 매출 수준과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 ② 신차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행하는 일종의 공짜 마케팅 전략이로군.
- ③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승해 본 결과 만족감을 느꼈다면 새 차를 구입해야 할 때 A사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④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료 체험단의 숫자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군.
- ⑤ 수많은 신청자 중 자사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던 고객들에게 무료 시승 기회를 주는 것도 공짜 마케팅 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에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잔소리 ② 흰소리 ③ 불멘소리
- ④ 실없는 소리 ⑤ 우스갯소리

22. <보기>를 이용하여 ㉠을 이해할 때, 공짜 마케팅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간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용왕이 나줄을 명하여 적간(摘奸)*하라 하니 과연 세 구멍 분명한지라. 왕이 의혹하여 주저하거늘, 토끼 여쭙오되,

“대왕이 어찌 이다지 의심하시나이까? 소신 같은 목숨은 하루 천만 명이 죽사와도 관계가 없삽거니와, 대왕은 만승(萬乘)의 귀하신 옥체로 동방의 성군이시라 경중(輕重)이 판이 하오니, 만일 불행하시면 천리강토와 구중궁궐을 뉘에게 전하 시며, 종묘사직과 억조창생을 뉘에게 미루시렵나이까? 소신의 간을 아무쪼록 갖다가 쓰시면 환후(患候)가 즉시 회복되실 것이요, 그러고 나면 대왕은 무려(無慮)히 만세나 향수하실 것이니, 소신은 일등공신이 아니 되옵나이까? 이러한 좋은 일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속여 아뢰을 가망이 있사오리까?”

하고 비위를 맞추며 용왕을 폭신 삶아내는데, 언사가 또한 절절이 온당한지라. 이 고지식한 용왕은 폭 곧이듣고 자기 생각에 헤아리되,

‘만일 제 말과 같을진대 저 죽은 후에 누구에게 물을쏴가? 차라리 잘 달래어 간을 얻음만 같지 못하다.’

하고, 토끼를 궁중으로 불러 올려 상좌에 앉히고 공경하여 가로되,

“과인의 망령됨을 허물치 말라.”

하니, 토끼가 무릎을 싹 쓰러뜨리고 단정히 앉아 공손히 대답하여 가로되,

㉠ “그는 다 예사로운 일이옵니다. 불우의 환과 액을 성현도 면치 못하거든 하물며 소신 같은 것이야 일러 무엇하오리까?”

... (중략) ...

밤에 즐겁게 놀고, 이튿날 왕께 하직하고 자라의 등에 올라 만경창과 큰 바다를 단숨에 건너 와서, 육지에 내려 자라에게 하는 말이,

“내 한 번 속은 것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거든 하물며 두 번까지 속을소냐. 내 너를 다리뼈를 주려 보낼 것이로되

[A] 십분 용서하노니 너의 용왕에게 내 말로 이리 전하여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었다 넣었다 하리오. 신출귀몰한 꾀에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 속았다 하여라.”

하니, 자라가 하릴없이 뒤통수 툇툇 치고 무리히 돌아가니,

용왕의 병세와 자라의 소식을 다시 전하여 알 일이 없더라.

(나)

토끼 자라를 보내고 회회낙락하며 평원 광야 너른 들에 이리 뛰며 흥에 겨워 하는 말이,

“어화 인제 살았구나. 수궁에 들어가서 배 제일 뻥하였더니,

요 내 한 피로 살아와서 예전 보던 만산풍경 다시 볼 줄 그 뉘 알며, 옛적 먹던 산실과며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뉘 알소냐. 좋은 마음 그지없네.”

한참 이렇게 노닐 적에, 난데없는 독수리가 살 쏘듯이 달려들어 토끼를 흠쳐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 정신이 또한 위급하다.

토끼 스스로 생각하되,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거니와,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야 무슨 수로 달래리요.’

하며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 문득 한 피를 얻고 이르되,

[B]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을 잠깐 들어 보요. 아주머니

을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하여 모은 양식 쓸 데 없어 한이러니, 오늘로서 만남이 늦었으니 어서 바빠 가사이다.”

수리 하는 말이,

“무슨 음식 있노라 ㉠(으)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내가 수궁 용왕 아니어든 내 어찌 너한테 속을쏜가?”

토끼 하는 말이,

“여보 아주머니, 털어놓는 정담을 들어 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이 있고 저리할 사돈이 있다 함과 같이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이니와, 우리 터에는 종종 서로 만날 터이어늘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일호라도 속이리오. 건너 마을 이 동지가 납제(臘祭)** 사냥하느라고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 갚기를 생각더니,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만배 병아리 사십여 수를 들만 남기고 다 잡아 오고, 제일 긴한 것은 용궁에 있던 의사(意思) 주머니가 내게 있으니, 아주머니는 생후에 들도 보도 못한 물건이오니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가 다 있지만은,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요 아주머니한테는 모두 필요할 것이라. 나와 같이 어서 갑시다. 음식은 매일 잔치를 한대도 다 못 먹을 것이요, 의사 주머니는 가만히 앉았어도 평생을 잘 건디는 것이니,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자손에게까지 전하여 누리면 그 아니 좋을쏜가?”

한즉, 이 미련한 수리가 마음에 솔깃하여,

“아무려나 가 보자.”

하고 토끼 처소로 찾아가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들어가며 조금만 놓아 달라 하니 수리가 가로되,

“조금 놓아 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찌하게?”

토끼 말이,

“그리하면 조금만 늦춰 주오.”

하니 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 주는 데야 어떠하랴?’

하고 한 발로 반만 쥐고 있더니, 토끼가 점점 들어가며 조금하다가 툭 잡아당기며 하는 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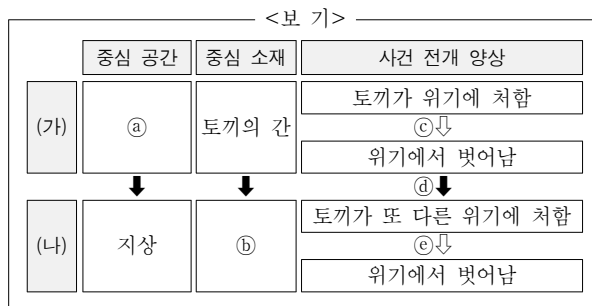
“내 꾀가 의사 주머니지.”

* 적간(摘奸) : 부정이나 거짓이 있는 지를 캐어 살피는 것

** 납제(臘祭) : 한 해 동안의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

- 작자 미상, 「토끼전」 -

23 위 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는 ‘수궁’이 적절함.
- ㉢에는 ‘의사 주머니’가 적절함.
- ㉣는 (가)와 (나)의 긴밀한 인과 관계를 나타냄.
- ㉡와 ㉣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됨.
- ㉡와 ㉣를 통해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가 실현됨.

24 위 글을 회곡으로 각색할 때, ㉠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방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내가 떠나고 자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구나.
-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안타까워하자.
- 드디어 용왕이 잘난 내 꾀에 속아 넘어가는구나.
- 돌아가면 성현의 가르침대로 조용히 살고 싶구나.
- 이왕 이렇게 된 일, 오늘은 모두 잊고 즐기고 보자.

25 [A]와 비교하여 <보기>를 감상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수토끼가 전후의 사연을 다 말하니, 암토끼 이 말을 듣고 자라 있는 곳에 가서 자라를 꾸짖어,

“이 끔찍하고 무서운 놈아. 전생의 무슨 원수로 남의 백년해로(百年偕老)할 남편을 유인하여 간을 내려 하였으니, 우리 남편이 꾀가 없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다. 네 심술이 그러하니 가다가 긴 목이나 툭 부러져 죽거나 대가리나 터져 죽을 놈아. 간 먹고 살기는커녕 새로 병이 심해져 곱게 죽지 못하리라.”

... (중략) ...

자라 하릴없이 탄식하며,

“간특한 토끼에게 속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왕을 보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글을 지어 바위 위에 붙이고 머리를 바위에 땡땡 부딪쳐 죽었다.

이때 용왕은 자라를 보낸 후 소식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거북을 보내어 그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라 했다. 거북이 즉시 물가에 이르러 살펴보니, 바위 위에 글을 지어 붙이고 그 곁에 자라의 시체가 있었다. 거북이 불쌍히 여겨 통곡하고 그 글을 거두어 돌아와 왕에게 사실을 아뢰니 왕이 불쌍히 여겨 비단을 내려 안장(安葬)하였다.

- 작자 미상, 「토끼전」 (경판본) -

- ‘자라’가 자결한 것은 신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드러내는 것 같군.
- ‘자라’를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용왕’을 인간적으로 그린 것 같군.
- 새로운 이야기를 첨가하여 읽는 재미를 더하여 주는 것 같군.
- ‘암토끼’의 등장으로 작품의 해석성이 한층 강화된 것 같군.
- ‘거북’이 등장하여 사건 전환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 같군.

26 [B]에 주목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감언이설(甘言利說)
- 부화뇌동(附和雷同)
- 언중유골(言中有骨)
- 자화자찬(自畫自讚)
- 호가호위(狐假虎威)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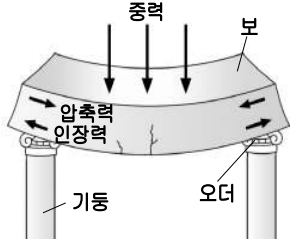
(가) 건물은 크게 지붕, 벽, 바닥의 세 부분으로 ㉠ 나뉜다. 이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답은 지붕이다. 그것은 바닥에 놓인 벽들은 주먹으로 잘 격파되지 않지만, 2장의 벽돌 위에 걸쳐 올려놓은 벽들은 주먹으로 격파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붕을 안정되게 만드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지붕 아래의 실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나) 지붕을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 놓은 보가 인장력에 강해야 한다. 보에는 지붕의 무게에 비례하는 강한 중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보의 위쪽에는 보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압축력이 생기고, 보의 아래쪽에는 보를 늘리고자 하는 인장력이 생긴다. 인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보는 결국 부러지고 만다. 인장력에 강한 재료가 없었던 과거에는 인장력을 견디는 힘이 돌보다 강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목재를 이용하거나, 돌 또는 벽돌을 사용하되 인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형태를 만들어 지붕 아래쪽에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 그리스 신전은 기둥들이 5~6m 간격으로 서 있다. 이는 돌로 만들어진 보가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최대 간격이다. 보에 가해지는 힘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경간의 제공에 비례한다. 따라서 경간이 두 배가 되면 그 힘은 네 배가 되고, 그에 대처하려면 보의 두께를 네 배로 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를 만들면 보의 무게가 다시 네 배로 증가해 보에 가해지는 힘도 네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스 신전은 그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대 경간값을 계산해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박공형) 모양의 경사지붕을 만들어 중력이 양쪽의 경사면을 따라 ㉢ 나뉘어 흐르도록 함으로써 보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맞닿는 부분에 있는 오더를 보면 장식을 가미해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 놓았는데, 이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라) 로마 시대에는 기둥을 촘촘히 세우는 그리스 건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붕 아래 커다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 기술을 발전시켰다. 아치란 창문, 출입구, 지붕 등을 둥글게 만들어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치 구조는 건축물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그 구조를 따라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아치가 무조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치에서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사선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려는 힘이 생겨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치 구조 옆에 측벽을 설치해야 한다. 측벽이 없으면 옆으로 벌어지려는 힘 때문에 아치는 무너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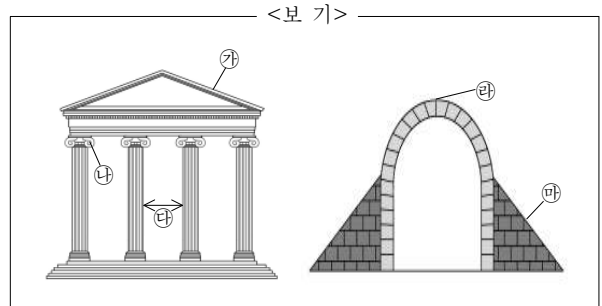
(마) 박공형이나 아치 등의 경사지붕에 비해 평지붕은 고층화가 가능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평지붕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보편화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인장력에 강한 철이 그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는 보를 압축력에 강한 콘크리트로 만들고 인장력이 작용하는 보의 아래 부분에 철을 묻어서 일체화시키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평지붕이 더욱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 온갖 형태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27.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벽, 바닥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붕의 특성
- ② (나) : 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생성 과정의 차이점
- ③ (다) : 그리스 신전에 사용된 지붕 건축 방식의 원리와 특징
- ④ (라) : 로마 시대에 사용된 아치 구조의 원리와 특징
- ⑤ (마) :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 평지붕의 보편화

28. 위 글을 토대로 <보기>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중력이 양쪽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기 때문에 평지붕에 비해 보에 가해지는 중력이 작다.
- ② ㉡는 기둥이 지붕의 무게에 비례해서 커지는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준다.
- ③ ㉢을 넓히면 보에 가해지는 힘이 커져 보가 부러질 위험이 커진다.
- ④ ㉣의 지점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중력은 아치 구조를 따라 땅으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
- ⑤ ㉢은 옆으로 벌어지려는 힘에 대해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시켜 준다.

29.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가능해진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둥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 ② 중력을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③ 인장력보다 압축력에 약한 돌의 문제점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 ④ 대형 경사지붕을 제작할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 ⑤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30. ㉠, ㉡와 의미가 유사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ㄱ. 그 식당의 좌석은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나뉘어 있다.
 - ㄴ. 그 아이는 21이 7로 나뉘면 3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
 - ㄷ. 사업의 이익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
 - ㄹ. 군대 병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 | | ㉠ | ㉡ | ㉠ | ㉡ |
|---|---|---|---|---|
| ① | ㄱ | ㄴ | ② | ㄱ |
| ③ | ㄴ | ㄷ | ④ | ㄴ |
| ⑤ | ㄷ | ㄹ | | |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직원들에게 제복을 입혀 단결력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사장의 방침을 담은 회람이 돌아 민도식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한다. 사장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억누른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단체로 제복을 맞출 때 민도식과 우기환이 슬그머니 사라지자 사장은 그들을 호출한다.

“자네들이 의복에 관해서 일가견을 가졌다는 소문인데, 어디 그 견해 좀 듣세나.”

참으로 난감한 청이었다. 듣자는 말은 듣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반어적 표현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 나대로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고 사원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시행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반대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 민군부터 이유를 설명해 보게.”
그러면서 사장은 담배를 권했다. 청자였다. 민도식은 그것이 값이 싼 청자임을 확인하는 순간 하마터면 제 주머니 속에 든 거북선을 꺼낼 뻔했다가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서 사장이 주는 대로 다소곳이 받아들였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민도식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망설일 것도 없었다.

“옷에는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기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복으로 직원들 간에 일체감을 조성해서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그러시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단결력보다는 제복에 눌러서 개성이 위축되고 단결력에 밀려서 자유로운 창의력이 퇴보되는 데서 오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해야 할 얘기야. 대다수 직원들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기업 발전에 단결력이 중요하나 창의력이 중요하나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싹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민군, ㉡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뻐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냐?”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가 불쑥 말했다.

“호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때 옆방이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실랑이하는 눈치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낯빛이 싹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겠잖아. 그 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수 없지. ㉣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 (중략) ...

“㉤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반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립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도룩하단 말야!”
거듭되는 제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넓적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직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

31. 위 글의 서술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서 서술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관찰을 위주로 전달하고 있다.

32.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제목으로 소설 읽기 : 소설의 제목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작중 상황을 고려하고, 제목 ‘날개 또는 수갑’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였을 때, 이 소설은 ()을(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꿈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좌절
- ②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 대한 갈망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 ④ 개인에 대한 속박과 그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
- ⑤ 오히려 속박이 될 수도 있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갈구

33. 위 글을 읽는 과정에서 <보기>의 시가 떠올랐다고 할 때, 각 시구와 관련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깔깔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 ① ㉠ : 행사에서 도열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② ㉡ : 원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단체로 제복의 치수를 재고 있는 회사원의 모습과 닮아 보인다.
 ③ ㉢ : 민도식과 우기환이 제복 착용의 부당성을 화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④ ㉣ : 제복 착용에 반대하는 민도식과 동료들에게 '이 세상 밖'은 제복을 강요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다.
 ⑤ ㉤ : 회사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제복을 입고 운동장에 도열해 있는 일부 회사원들도 '주저앉는' 심정일 것이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결정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회사의 방침을 따를 것을 요구함.
 ② ㉡ : 제복이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반박함.
 ③ ㉢ : 기업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복을 입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④ ㉣ : 회사의 방침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대방에 대해 경고함.
 ⑤ ㉤ : 남편이 회사가 정한 방침을 어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냄.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업혁명 이후 기계의 힘을 빌려 양산된 공예품들은 그 값이 싸졌지만 질이 낮고 조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값이 저렴해진 공예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예술가들은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기 시작했다. 이에 예술가들은 직접 손으로 만든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살려 대중과 ㉠ 유리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예술공예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아르누보 양식이 탄생하는 기틀이 되었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1895년 파리에서 개관한 갤러리 메종 드 아르누보(Maison de Art Nouveau)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갤러리에서 전시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예술 양식이나 중세의 고딕 양식들이 보여 왔던 정형성을 탈피하여 자연에서 느낀 미적 감수성을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구현한 작품들이었다. 이는 당시 저급한 예술품이 양산되면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축시켰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자연에서 찾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바탕으로 탄생한 아르누보는 자연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는 수작업을 중시했다. 그리고 자연에서 착안한 곡선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았는데,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식물과 관련된 소재를 자주 사용했는데, 꽃이나 나무 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담쟁이 줄기나 잎을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추상화한 식물 무늬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 꽃이나 식물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하는 것 또한 아르누보가 즐겨 사용한 양식적 특징 중 하나였다.



안토니오 가우디, <카사 바트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 바트요>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아르누보의 장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생물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면에는 화려한 색으로 장식한 담쟁이 넝쿨과 잎을 그려 넣었고, 기둥과 뼈대는 파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으로 구성해 자연스런 울동감과 함께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집착한 나머지 곡선·곡면의 집적이라는 과잉 장식의 늪에 빠져, 합리성을 중시했던 근대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20세기 초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주목 받았던 예술 양식이었지만, ㉡ 현대 미술의 서막을 연 표현주의의 원시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바로 아르누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아르누보가 일시적인 관심거리에만 머물렀던 예술 양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르누보를 탄생하게 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며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아르누보라는 명칭이 생겨난 유래와 함께 아르누보 작가들의 예술적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아르누보의 양식적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아르누보 양식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근대 사회의 시대적 특성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다.
- ⑤ 아르누보가 예술 외적인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던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36. 위 글의 내용에 따라 아르누보의 특성을 <보기>와 같이 요약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아르누보는 예술성이 높으면서도 (A)을(를) 얻을 수 있는 예술을 지향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르누보가 택한 길은 수작업을 통해 (B)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다.

- | | |
|----------|------------|
| (A) | (B) |
| ① 사회적 관심 | 도시적인 감수성 |
| ② 사회적 명예 | 인간의 꿈과 환상 |
| ③ 대중의 사랑 | 현실 세계의 모습 |
| ④ 대중의 호응 | 자연에서 얻은 영감 |
| ⑤ 막대한 이익 | 자연에서 느낀 감성 |

37.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했다. 아르누보와 표현주의의 공통점을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표현주의는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하는 것을 중시한 사조이다. 이에 따라 ㉡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표현 방식에서 탈피해, 선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형태를 표현했다. 또 과장되고 즉흥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으며, ㉢ 거칠고 단순한 원색을 사용해 대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현주의의 이러한 예술적 경향은 ㉣ 산업사회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주의가 ㉤ 절망이나 불안 등 인간의 어두운 감정 상태를 주로 표현하고 반문명적인 삶에 관심을 보인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38.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 | |
|-------|-------|-------|
| ① 멀어진 | ② 헤어진 | ③ 흩어진 |
| ④ 끊어진 | ⑤ 떼어진 | |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 뒤에 타작마당이 있는 듯 거기 일꾼들이 간간히 외치는 소리와 군호마져 해가며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린다. 무대에는 철구통 뒤에 가마니를 쓰고 말뚝이(더벅머리 노총각, 돼지꼬리 같은 댕기를 드렸다.)가 숨어 있을 뿐이고 아무도 없다. 웬일인지 말뚝이는 오늘 아침부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국서 : (집 곁에서 소리만) 말뚝아! 말뚝아! 이 배라떡다 죽을 놈이 어딜 갔어? (헛간으로 나온다. 완고한 농사꾼. 뒤통수에 눈썹재기만 한 상투가 붙었다.)일은 허지 안쿠 이 욕시를 헐 놈이 어디로 새 버리고 말었나? 원,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이웃 사람 우삼 등장

우삼 : 국서, 어때? 타작 잘들 하나?

국서 : (㉠) 그저 그러이. 저 타작마당으로 가세. 술이나 한 잔 나눠 먹게.

우삼 : 너남죽 할 것 없이 농사는 잘 됐어. 참 금년이야말로 풍년이야. 가다 드문 대풍년이거든!

우삼 헛간 입구로 퇴장. 개똥이 울타리 밖 행길에 나타난다. 뱃질하는 사람이 흔히 입는 특독한 샤쓰를 입고 조타모를 썼다.

국서 : 이놈 개똥아! 오늘같이 바쁜 날에 너는 어디를 쏘다니니. 없는 돈에 샀꾼 얻어서 일하는 것을 보구. 그래 사대육신 성현 놈들이 왜 그렇게 빈둥거리고 노느냐 말이야? 이놈, 성녀석은 또 어디 갔니?

개똥이 : (㉡) 못 봤수, 나는.

국서 : 에이 죽일 놈들! 자식들 있다는 보람이 어디 있어! 그저 삼신 할머니의 잘못된이야. 이 따위를 자식이라구 점지해 주신 삼신 할머니가 아예 미쳤어!

개똥이 : 아버지, 그렇게 부아만 내지 마시구 내게 노자를 만들어 주. 나같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놈을 붙들고 농사를 지으라니 될 말이오. 여기서 이냥 놀기만 해두 갑갑해 죽겠는데.

국서 : 이놈아, 네가 아무리 뱃놈이기로서니 애비가 바빠서 이러는데 좀 거들어 주었다구 뺨다귀가 뿌러질 게 뭐냐?

개똥이 : (㉢)저 이것 봐요 아버지. 우리 집 소, 그만 팔아서 나 노자해 주. 네? 나 만주 가서 돈 많이 벌어가 지구 올게. 일천오백 냥[30원]만 있으면 돼요.

국서 : 뭐? 소를 팔어? 원, 이 지각 없는 자식놈의 소리 좀 들어 보게. 이놈아, 우리 소는 저래 빼도 탄 데 있는 그런 너절한 소하고는 씨가 다르다. 너두 알지? 우리 집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님뻘 되는 소가, 그러니까 우리 소의 사촌의 큰 아버지뻘 되는 소지, 그 소가 읍내 공진회에 나가서 도 장관 나리한테서 일등상을 받았어. 정신 채려라! 일등상이야. 그런 내력 있는 소를 함부로 팔아?그 소가 우리 집에서 그저 밭이나 갈고 이웃에 불려가서 품앗이나 들고 하니까 그저 이놈이 업수이 여겨서.

개똥이 : 아버지, 요즘 만주만 가면 돈 벌이가 참 많대요, 이때가 바로 물뽕입니다.

국서 : 흥, 이놈아, 건성으로 돈이 사람을 따르는 줄 알아서는 안 돼. 너 따위 배 타러 다니는 놈이 그렇게 대가리에다가 지

꾼지 똥지를 치바르고 게다가 비단조기까지 잡숫고 그래가지고 두 돈을 벌어? 당최 그런 생각일랑 염두에도 두지 말고 뒷길에 가서 소 마구간이나 치워라. 그리고 성 녀석 만나거든 어서 타작마당으로 오라구 그래.

개똥이 : 아버지, 그렇지만.

국서 : 얼른, 이놈아! 시키는 대로 좀 고분고분히 해라!

개똥이 하는 수 없는 듯이 집 뒤로 나간다. 이 때 좌편에서 술집 하인 자전거로 술을 한 통 싣고 온다.

술집 하인 : 술 가져 왔어요.

국서 : 그래, 이리로 가져 온. 너 행길에 오다가 혹시 우리 집 말뚝이 못 봤니?

술집 하인 : 못 봤어요.

국서 : 원, 이런 육싹힐 놈이 어딜 갔담!

국서 술집 하인을 데리고 헛간 입구로 퇴장

말뚝이 :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두 뒷간에서 개 부르드키 그렇게 쉽게는 나를 못 불러 쓸 거야, 빌어먹을! 누가 일을 헌담!홍, 죽 쑤어서 개 좋은 일 시키게. 나는 싫어. 막 죽어두 일은 안 헐 테야.

집 뒤에서 타작하는 소리. 쟁과리 소리 들리기 시작한다. 문진이 헛간 입구에 나타난다.

문진 : (소리친다) 자, 술 먹으러들 오게!아무도 없구나. (사라진다)

말뚝이 : (㉡)으! 아이 갑갑해.술만 쳐먹구 지랄병만 허면 제일이야. 빌어먹을! (몸부림친다)

집 뒤에서 일꾼들의 노랫소리 들린다.

풍년이 왔네 / 풍년이 왔네 / 이 강산 삼천리 / 풍년이 왔네
에헤 데헤야 / 열차 좋고 좋아 / 어름아 지화자 / 네가 내 사랑이지

헛간 입구를 통해서 우삼이와 문진이가 어깨를 출썩거리고 춤추는 게 보인다.

말뚝이 :에그, 그 거드러대는 꼬락서니 참 볼 수 없군! 풍년이 왔으면 먹을 꺼나 남을 줄 아니까 장관들이지. (가마니를 둘러쓰고 다시 눕는다.)

- 유치진, 「소」 -

4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당시 **우리 농촌의 궁핍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위의 장면은 **관습적인 사고**를 지닌 구세대와 그에 대립하는 신세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농촌을 **파괴하게** 만들고 있는 **당시 농촌 사회의 모순**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가의 냉철한 역사적 안목**으로 당시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포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극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당시 농촌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① 개똥이 같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농촌을 떠나는 것은 ‘우리 농촌의 궁핍한 실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로군.
- ② 말뚝이가 숨어 있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게 농사만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관습적인 사고’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군.
- ③ 풍년이 와도 먹을 것이 남지 않는다는 말뚝이의 대사를 통해 ‘당시 농촌 사회의 모순’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똥이를 통해 ‘작가의 냉철한 역사적 안목’을 대변하려고 하였군.
- ⑤ 이 작품에서 ‘회극적 요소’는 말뚝이, 개똥이 같은 우스꽝스런 이름과 인물들의 해학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군.

3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② 선인과 악인을 대비시켜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사건을 반복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을 통해 타협적인 인간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
- ⑤ 비속어를 활용해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1.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귀찮다는 듯이
- ② ㉠ : 통명스럽게
- ③ ㉡ : 눈치를 보며
- ④ ㉡ : 부루통해져서
- ⑤ ㉡ : 꿈꿨대며

[42~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라 때부터 사용된 향찰은 비록 한자를 빌려 쓰기는 했지만, 우리말을 매우 정교하게 적을 수 있는 훌륭한 표기법이었다. 향찰은 우리말의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했으며, 실질적 의미를 지닌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었다. 예를 들어 「제망매가」의 첫 구절을 보자.

生死路隱(생사로은) 죽사릿길[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서 ‘죽사릿길[삶과 죽음의 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므로 한자의 뜻을 따서 ‘生死路’로 적은 것이고, 토에 해당하는 ‘은’은 한자의 음을 따서 ‘隱’으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향찰은 우리말을 우리 식으로 적은 표기법이었지만, 그 생명은 고려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갖고 닦아 체계적이었던 ㉠ 향찰 표기법이 왜 사라졌을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귀족 사회의 한문 선호도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때 향찰은 주로 귀족 계급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문을 알지 못하고서는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말을 우리 식으로 표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찰과 같은 우리 식 표기법을 익혀 사용하기보다는 아예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쪽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려 초에 인쇄 등 용을 위해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문 선호도가 더 높아졌고, 결국 향찰은 소멸되고 말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어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왔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성조가 추가되어 최종 소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중국어는 단음절을 하나의 한자로 표기하면 된다. 반면에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복잡하고 음절의 수가 많아서 한자 차용만으로 한국어의 소리를 만족스럽게 표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어머니’와 같이 복수음절(複數音節)로 이루어진 단어가 얼마든지 있으나, 중국어는 ‘母[mǔ]’와 하나로 나타내면 그만이다.

한편, 일본어의 표기법은 핵심적 단어는 한자로 적고 토는 가 나라는 일본의 문자로 적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표의 문자인 한자로 적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는 표음 문자로 적는 셈이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향찰 표기법을 꼭 빼닮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이면서도 일본어에만 향찰과 유사한 표기법이 살아남은 것은 일본어의 특징 때문이다. 일본어는 하나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음절을 이루고 받침이 거의 없는 음절 언어이다. 이러한 음절의 특색에다가 토가 발달한 교착어라는 점이, 향찰과 유사한 표기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하지만 같은 교착어라도 다양한 음소와 받침이 발달한 한국어는 향찰로 표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향찰이 소멸한 것은 우리말의 특성에서도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향찰의 표기 체계가 정교했다 하더라도 한자만을 가지고는 우리말의 다양한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말을 우리 식으로 적었던 향찰은 사라지고 말았다.

* 토 : 토씨의 준말로 조사와 어미 등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한문을 읽을 때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을 가리킨다.

4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향찰은 신라 말에 소멸되어 고려 시대에 쓰이지 않았다.
- ② 우리 선조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
- ③ 고려 때에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문 선호도가 높아졌다.
- ④ 중국어는 한자의 한 글자로 하나의 음절을 표기할 수 있다.
- ⑤ 일본어의 표기법은 한자와 가나 문자를 함께 적는 방식이다.

4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2행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善化公主主隱 신화공주니은(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 남 그스지 얼어* 두고(남 몰래 결혼하고)

薯童房乙

맛동바을(맛동서방을)

夜亥卯乙抱遺去如 바미 몰 안고 가다(밤에 몰래 안고 가다)

- 양주동 역, 「서동요(薯童謠)」 -

○ 2행(他密只嫁良置古)에 대한 분석

원문	他	密	只	嫁	良	置	古
음	타	밀	지	가	양(어)	치	고
뜻	남	그속히	다만	얼다	어질다	두다	옛
해독	남 그스지 얼어 두고(남 몰래 결혼하고)						

* 얼다 : ‘시집가다, 결혼하다’의 옛말

- ① ‘남(남)’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他[타]’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군.
- ② ‘密只’에서 ‘密[밀]’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只[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군.
- ③ ‘얼어’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嫁[가]’와 ‘良[양]’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군.
- ④ ‘두고’의 어간 ‘두-’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置[치]’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군.
- ⑤ ‘두고’의 어미 ‘-고’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古[고]’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군.

44. <보기>는 ㉠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의 원인이 되는 ㉡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귀족사회의 한문 선호도

㉡ 우리말의 특성

㉠ 향찰의 소멸

- ① 음절의 수가 매우 많다.
- ② 다양한 음소가 발달되어 있다.
- ③ 복수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다.
- ④ 토가 발달한 교착어의 언어 구조를 지니고 있다.
- ⑤ 한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리, 의무, 본분’ 등의 행동규범이 있다. 이것을 융(C. G. Jung)은 그의 분석심리학에서 ‘페르소나(persona)’라고 불렀다. 이 말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역할에 따라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가리키던 말이다. 이러한 의미가 전용(轉用)되어 사회적 역할을 뜻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연극에서의 가면이 배우의 본모습이 아니듯이, 페르소나 역시 개인의 본모습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겉모습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페르소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강화된다. 모든 인간은 ‘사람 된 도리’로서, ‘직장인의 의무’로서, ‘학생의 본분’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 등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소나는 강화되어 간다. 페르소나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만들어 준 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폐처럼 특정 집단에 한해서만 유효하고 그 밖의 집단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든가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마다 형성되어 있는 페르소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입장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 가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즉, 페르소나는 개인의 본모습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절충해 나감으로써 개인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페르소나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동일시하여 그에 의존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본모습을 잃게 되고, 그것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페르소나의 팽창’이라고 불렀다. 페르소나가 팽창된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과 자책감에 빠져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 체면에 어떻게 그것을……’과 같은 심리가 강조되면서 페르소나가 하나의 속박이 되고, 거기에서 노이로제의 씨앗이 싹트게 된다.

그러므로 페르소나의 팽창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본성으로서의 삶과 페르소나로서의 삶을 구별하고 페르소나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융은 ‘자기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자기실현은 인간의 본모습을 깃누르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본성이 살아 숨 쉴 때 가능해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가 필요하다. 특히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절에는 페르소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규격화된 태도와 역할에 지나치게 빠져 자기의 본모습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상황에 따라 페르소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 ② 사회마다 형성되어 있는 페르소나는 각기 다를 수 있다.
- ③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본모습이 일치해야 한다.
- ④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⑤ 한 사회의 페르소나가 다른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4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너는,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겠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이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홍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 이범선, 「오발탄」 —

- ① 영호는 철호가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 ② 영호는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 ③ 철호는 영호에게 동생으로서의 페르소나를 요구하고 있다.
- ④ 철호가 형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드러낸다면 영호를 질책하거나 포용하게 될 것이다.
- ⑤ 철호와 영호는 형제인데도 페르소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47. 위 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디오게네스를 평가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페르소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군.
- ② 페르소나의 팽창으로 문제를 겪고 있군.
- ③ 본모습과 페르소나를 잘 절충하고 있군.
- ④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군.
- ⑤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군.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는 진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소리를 느낄 때 많게는 1초에 2만 번이나 되는 진동이 귀에 닿는다. 진동이 매질을 따라 퍼져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악기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기를 진동시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악기마다 다양한 음역과 음색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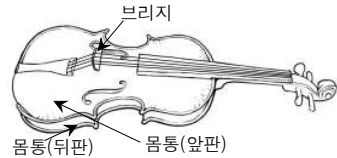
악기 소리의 높이와 크기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 결정된다. 진동수가 적으면 소리가 낮고, 많으면 소리가 높다. 그리고 진동하는 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작으면 소리가 작다. 여기서 악기 소리를 크게 하려면 진폭을 크게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악기 소리의 진폭을 크게 만드는 데는 공명(共鳴) 현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네가 뒤로 끝까지 왔다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에 밀면 그네의 진폭이 커지듯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진동수에 그와 일치하는 진동이 에너지를 더해 진폭을 크게 만드는 현상이 공명이다.

바이올린의 현은 그 자체로는 작은 소리밖에 못 낸다. 그러나 활로 쳐서 현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브리지**를 통해 **몸통**으로 전해져 공명이 일어나면 소리가 커진다. 바이올린은 기타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큰 소리를 낸다. 몸통의 앞판과 뒤판이 **막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의 진동이 앞판뿐만 아니라 뒤판에도 전해져 몸통 전체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명은 바이올린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럼 바이올린의 넓은 음역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바이올린은 현의 팽팽한 정도와 길이를 조절해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낸다. 현이 팽팽할수록, 손가락으로 브리지에 가까운 쪽의 현을 누를수록 소리가 높다. 현의 진동수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

[A]

하고, 소리의 높이는 현의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리코더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일까? 리코더는 ① 관 속의 공기 기동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숨을 취구에 있는 에지라는 부분에 불면, 공기가 교대로 에지의 위와 아래로 흐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코더 관 속의 공기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때 생기는 진동으로 관 속의 공기 기동에서 공명이 일어나게 된다. 리코더는 관의 구멍을 열거나 막음으로써 관 속 공기 기동의 길이를 바꾸어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숨을 불어 넣는 취구에 가까운 쪽의 구멍을 열면 공기 기동이 짧아져 진동수가 많은 소리가 난다. 공기 기동의 길이와 진동수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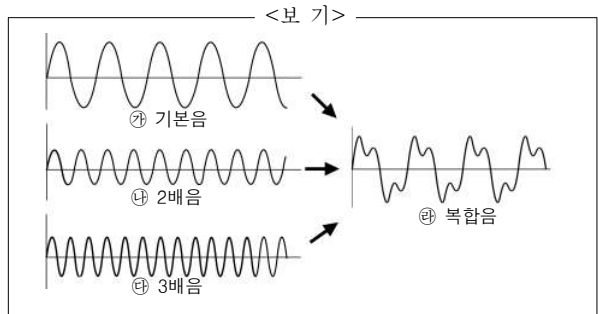
소음이나 악기 소리 모두 진동수가 다른 여러 음이 겹쳐진 복합음이다. 그러나 악기 소리는 여러 면에서 소음과 구별된다. 소음과 달리, 악기 소리는 기본음에 그것의 두 배의 진동수를 가진 2배음, 세 배의 진동수를 가진 3배음 등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배음이 겹쳐진 소리이며, 일정한 파형이 반복되는 소리이다. 배음들의 조합과 소리의 세기는 음색을 결정한다. 이 음색 때문에 바이올린과 기타로 같은 크기와 높이의 소리를 내도 다르게 들린다. 음색은 공명의 정도 차이에도 달라진다. 악기마다 음색이 같다면 어떨까? 그러면 교향곡, 합주곡 등의 음악 갈래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4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기 소리의 발생 원리와 특징
- 소리의 진동과 공명 현상을 중심으로
- ② 악기 소리와 공명 현상의 관계
- 악기의 연주 과정을 중심으로
- ③ 악기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그 중요성
- 악기 소리의 발생 과정을 중심으로
- ④ 악기 소리와 관련 있는 과학적 현상
- 악기 재료의 속성을 중심으로
- ⑤ 악기 소리의 넓은 음역과 다양한 음색
- 소리의 다양한 파동 형태를 중심으로

49. 위 글을 토대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 ㉢에 비해 진동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소리도 더 크게 들린다.
- ② ㉡는 진동수가 ㉢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공명이 되어도 ㉢보다 진폭이 작다.
- ③ ㉢ 대신에, ㉠의 1.5배의 진동수를 가진 배음이 ㉠, ㉡와 복합된 소리는 ㉢과 다르다.
- ④ ㉢은 일정한 파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음과 구별된다.
- ⑤ ㉠, ㉡, ㉢이 각각 어떤 세기를 지닌 음으로 합쳐지느냐에 따라 복합된 소리의 음색이 달라진다.

50. [A]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① 현, 활 ② 몸통, 현 ③ 활, 브리지
- ④ 막대, 몸통 ⑤ 브리지, 막대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